



Vol.03

한 발 대학교
미래산업융합대학
뉴스레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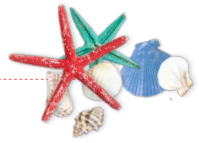
HANBAT · NATIONAL · UNIVERSITY
College of Multidisciplinary Studies in Converging Science

N · E · W · S · L · E · T · T · E · R



한밭대학교 미래산업융합대학
뉴스레터

2020. 06.
Vol.03



발행일
2020년 6월
발행처
한밭대학교 미래산업융합대학
주소
34158 대전광역시 유성구 동서대로125
전화
042.828.8888
홈페이지
<http://mirae.hanbat.ac.kr>

들어가는 말 03

즐거운 대학생활 04

2020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미래산업융합대학 건물 이전
미래산업융합대학 총학생회 출범식
드림캠프
특강-영화가 알려주는 매력적인 중년기
미래산업융합대학 헬프룸(Help room) 개설

학과 소개 06

창업경영학과를 소개합니다 | 창업경영학과 교수 길석면

동아리 소개 07

전기시스템공학과 동아리[전기박사] | 전기시스템공학과 19학번 최병호, 전상민, 오대현

학생마당 09

넘버원(Number one)이 아닌 온리원(Only one)이 되기 위해
| 회계세무부동산학과 19학번 설하경
다사다난(多事多難) 했던 나의 4년 | 전기시스템공학과 17학번 조창우

심리상담 이야기 11

나를 찾아가는 여행 | 18학번 김수영(가명)

들어가는 말



이 정 기 총학생회장
스포츠건강과학과 18학번

미래산업융합대학 총학생회를 출범하며

2020년 3월, 새로운 만남과 출발의 기쁨으로 충만하였을 새학기를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비대면 온라인 강의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웠던 것은 지난 2월 1일 미래산업융합대학 신입생 예비대학 행사를 진행할 수 있었고, 코로나-19 확장세가 시작되기 전에 총학생회 임시총회를 개최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신입생 예비대학에 참석한 많은 신입학우님들의 진학과 배움에 가득 찬 열망을 보며 커다란 감명을 받았습니다. 학생회 대표로서 거듭 축하와 환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재학생 여러분도 정상적인 수업 시작은 아니지만 아무쪼록 힘내시고 학업에 열중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올해는 미래산업융합대학이 비로소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모든 학년체제를 갖는 의미 있는 해입니다. 더불어 총학생회 출범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우리 재학생이 주체가 되는 대학생활의 첫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뜻깊은 2020년 시작이 우리 앞에 닥친 코로나-19로 인해 화려한 출발은 못했지만, 지난 2월 총학생회 총회를 거치며 총학생회 회칙 제정 및 올해 사업계획도 어느 정도 수립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올해 예정된 행사가 정상적으로 진행 가능할까 하는 것입니다. 예전 같으면 4월 학과별 드림캠프와 전 학년이 참석하는 5월 체육행사로 학우 간 단합과 사기진작 및 새로운 체함을 누릴 수 있었을 텐데요, 행사진행이 지연 되더라도 계획했던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벌써 두 번의 드림캠프와 체육 행사에 참석 했습니다. 교수님과 함께 학우 간 소통과 정을 나눌 수 있었던 추억 가득한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한편으로는 학생회장으로 인사를 드리면서도 마음이 무거운 것이, 우리는 학령기 재학생처럼 학업에만 전념하는 시간이 많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총학생회를 출범하고 학생회 임원을 만나기 위한 시간조차도 쉽게 낼 수 없었기 때문이지요. 일과 학업을 병행하기란 우리 학우님들 생각 보다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쉽게 실망이나 좌절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내 주변에는 언제나 상담 가능한 존경하는 교수님이 계시고, 사귀고 보면 서로가 힘이 되어주는 학우들이 곁을 든든히 지켜주고 있으며, 자체활동도 강화할 수 있는 총학생회도 출범되었기 때문입니다.

미래산업융합대학인 여러분! 국립 한밭대학교 미래산업융합대학에서 변화무쌍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인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대학을 발판으로 끝없는 도전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대학 4년도 금방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언제나 건강을 잘 챙기면서 뜻하는 학업 성취 이루고, 발전하는 모습을 두 손 모아 기원하겠습니다.



즐거운 대학생활

Happy college life

> 2020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2020학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 2월 1일 N13동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신입생 여러분 환영합니다.



> 미래산업융합대학 건물 이전

미래산업융합대학이 기존의 S8동 건축공학관에서 N13동 그린 에너지관으로 이전했습니다. 새로운 곳에서 희망찬 시작을 기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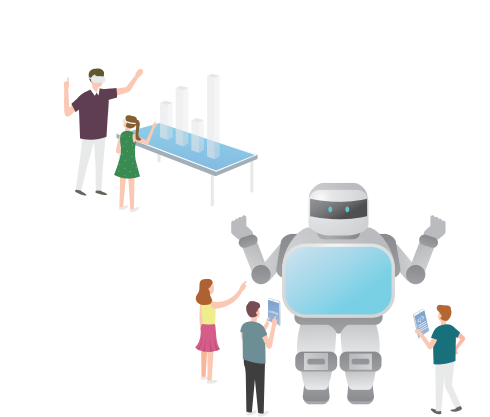
> 미래산업융합대학 총학생회 출범식

한밭대 미래산업융합대학 총학생회 출범식이 지난 2019년 11월 20일 열렸습니다. 총학생회 구성에 대한 보고 및 임원을 소개하고 총학생회 기능과 계획을 안내하는 자리였습니다.



> 드림캠프

2019년 드림 캠프가 11월 20일, S7동 종합체육관에서 재학생 및 교직원 2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이번 드림캠프에서는 산학협력 Fair를 통해 4차 산업혁명시대의 인재로 발돋움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 특강-영화가 알려주는 매력적인 중년기

2019년 10월 미래대 심리상담실에서 성인 학습자의 인생 발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편안하고 수용적인 중년기를 보내기 위한 특강을 열었습니다. 영화를 통해 중년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되짚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 미래산업융합대학 헬프룸 개설

N13동으로 이전 하면서 학생들을 위한 헬프룸 (Help room)을 개설했습니다. 헬프룸에서는 재학생들의 기초학습능력을 증진하기 위한 학습지도와 상담은 물론 소규모 그룹스터디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수학, 영어, 컴퓨터를 학습도우미 TA와 함께 배울 수 있는 미래대인을 위한 공간입니다.



창업경영학과를 소개합니다

길 석 면
창업경영학과 교수



스타트업과 기존 선도기업간의 협업시대가 도래하면서 가장 핵심적인 경영의 키워드는 창업경영이란 개념이다.

창업경영이란, 새롭게 등장하는 신기술을 초도시장에 연결하여 개발하고 검증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창업경영은, 창업자 (Entrepreneur) 중심의 기술에 새로운 사업기회를 접목하여 새로운 기업을 만들고 발전시켜 초도시장에 런칭하는 Entrepreneurship과, 시장에 본격 진입하여 조직을 가지고 접근하는 Management의 상호유기적인 연결고리가 원만하게 완성됨을 강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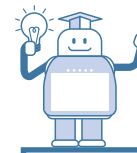
학문의 특성상 창업경영 사례와 실천실행중심의 자기주도 학습인 창업실전의 기법을 체계화하고, 이것을 기반으로 수많은 사례를 만들어 이론화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 과정에서 기존의 경영 이론과 방법론은 창업실전학습 기저의 중요한 기반을 제공한다.

창업경영학과는 미래산업구조가 대기업과 스타트업의 협력 시대로 진화함에 따라, 이들 시대가 요구하는 비즈니스리더 및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따라서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술과 산업 트렌드의 이해를 통하여 초기사업화 역량을 발휘하는 창업자 역량, 이들의 성과를 중견기업에 연결할 수 있는 미래 융합컨설팅 역량, 중견기업에서 요구되는 경영에 대한 지식을 이해하고, 스타트업을 발굴 육성할 수 있는 창업 및 혁신 주도적 전문역량을 배양시키는 것이 교육의 구체적인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창업경영학과에서는 사례와 실전을 강조한다. 미래의 산업과 시장 트렌드를 기회 요인으로 하는 신기술 경쟁력을 장착하고, 창업팀을 구성하여 기업을 만들고, 투자유치를 통해 초도성장 하여 기존 선도기업에 매각하는 전 과정을 학습한다. 고학년 과정에서는 기존 선도기업과의 연계 강화를 위한 학습을 진행함으로써, 기존 경영학의 개념과 그 도메인을 이해시키는데도 주력한다.

창업경영학과는 창업기업의 특징을 실천적으로 습득하고, 기존 경영의 이론과 개념을 사례와 접목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 명실공히 선도기업과 연계한 창업기업 창출, 즉 혁신창업의 핵심역할을 하는 인재 양성의 요람이 되고자 한다.



전기 박사

전기시스템공학 19학번 최병호 | 전상민 | 오대현

Q : [전기박사] 동아리 이름이 친근감이 느껴지네요. 어릴 적 재능있는 친구를 부르는 별명 같기도 하고, [전기박사]가 어떤 동아리 인지 소개해 주시겠어요?

전상민 : 저희 동아리는 전기시스템공학과 19학번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다들 직장인들인데요. 늦었지만 공부에 열과 성을 다하는 만학도들입니다. 대부분 전기관련 직종에서 일하는데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서로 정보도 나누고 공부도 돕는 것은 물론이구요. 술 한 잔 기울이면서 직장이나 학업 스트레스를 풀아가는 가족 같은 동아리입니다.



최병호 : 네 저희 학교 특성상 수업에만 들어가면 대학의 낭만과 재미를 느끼기 힘들거든요. 틈틈이 만나 일상적인 대화도 나누고 즐거운 것들을 나누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저는 회장으로서 전공 관련 자격증 외에도 국가기술자격증을 11개



취득했어요. 그동안 쌓아온 공부 노하우, 자격증 취득 방법을 같이 공유하면서 학업에 어려움이 있는 학우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서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동아리 지도 교수님이신 박영 교수님도 많이 도와주고 계시구요.

Q : 이제 막 첫발을 댄 신생 동아리인데 겨울방학도 있고 얼마 전 코로나-19때문에도 서로 모임이 쉽지 않았겠어요.

최병호 : 2019년 11월에 설립했는데 절차에 대해 몰라서 어려움이 좀 있었어요. 어렵게 설립을 하고 바로 기말고사, 겨울 방학이 있어서 첫 활동이 어렵더라고요. 그래도 단톡방을 통해 틈틈이 소식도 전하고 송년회도 했죠. 모임 장소를 돌아가면서 회원들 집 또는 그 근처에서 하려고 계획도 세워 놓았어요.

전상민 : 맞아요. 대학생들도 처음인데 동아리를 어떻게 만드는지 알 수가 있어야죠. 하지만 열정적인 병호 회장 형님의 제안으로 무사히 동아리가 만들어졌어요. 아쉽게도 바로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루어지면서 특으로 이야기 나누고 공부하다 모르는 게 있으면 영상통화까지 하면서 풀이 과정을 들곤 했어요.

Q : 같은 학과 동기들이라 수업시간마다 만날 텐데 [전기박사] 동아리 활동을 같이 하는 것은 개인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최병호 : 저희가 대학을 오면서 기대했던 건 좀 더 깊은 학업도 있지만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를 넓혔으면 하는 욕구도 있어요. 저희들 각각 직장은 다르지만 같은 전기 관련 일을 하다보니 직장에서 있었던 일, 몰랐던 것을 서로 물어보고,

알려줄 수 있는 자리가 되곤 해요. 특히 한 친구는 식빵 제조 공장 설비공무에서 일하는 친구가 있는데 동아리 회원들에게 가끔씩 아주 딱딱딱하고 갓 구운 빵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정말 좋은 동아리 아닙니까?

전상민 : 전기기사라는 것은 혼자 공부하기에는 너무 어려워요. 수학적 공식과 풀이과정이 너무 많아서 혼자 공부하면 이게 맞는건지 틀린건지, 틀렸다면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참 공부 어렵습니다. 하지만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영상통화 같은 것을 통해 풀이과정을 서로 공유하며 공부하는 것이 정말 좋았어요. 그리고 다들 직장인들이기에 만나서 술도 한 잔씩 하면서 뒤늦게 학생이란 신분으로 산다는 것이 너무너무 즐겁습니다.

Q :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있나요?

전상민 : 제가 문제 풀이가 어려워 병호형님에게 영상통화로 풀이과정을 듣고 있는데, 저희 아내가 무슨 남자끼리 영상통화 하나며 너무 사랑하는 것 같다고 질투를 하더라고요.

오대현 : 신생 동아리이기도 하고 서로 알아가는 시간도 필요했어요. 하지만 일을 병행하다 보니 여유가 많지 않아서 따로 여행을 가진 못했거든요. 이번 1학기가 끝나게 되면 여름방학 때, 주말에 계속 같은 시원한 곳으로 여행갈 계획입니다. 벌써

상상만 해도 행복회로가 돌아가네요. 지나간 에피소드는 아니지만 미래의 에피소드만 그려도 머릿속에서 잊히지 않아요.

Q : [전기박사] 신입회원들도 뽑을 텐데 어떤 회원들이 가입하면 좋을까요?

최병호 : 미래대 학생이면서 관심 있는 분이면 모두 환영합니다. 특히 저희 동아리는 20대부터 4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있고, 대학생활의 낭만을 원하는 학생들로 이루어져 즐겁고 낭만적인 대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낭만과 즐거움을 함께 하고픈 분이시면 대환영입니다.

전상민 : 자격증 취득을 원하는데 혼자 공부하기 어렵다고 느껴지시는 학생이라면 무조건 환영이죠. 다만 저의 생각은 남녀 비율이 균형을 이루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은 남학생들이 많아서요.

Q : 네 미래대도 [전기박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앞으로 어떤 동아리로 커가길 바라나요?

최, 전, 오 : [전기박사] 동아리 이름처럼 똑똑한 전기박사가 되어 자격증 취득하고 장수하는 동아리로 남고 싶습니다. 졸업하기 전까지 국가기술 자격증 2개 정도 취득해서 졸업 하는 게 저희 동아리 회원들의 목표입니다.



“ 넘버원(Number one)이 아닌 온리원(Only one)이 되기 위해 ”



설하경
회계세무부동산학과 19학번

누군가 나에게 ‘당신의 꿈은 무엇인가요?’ 라고 묻는다면 ‘넘버원이 아닌 온리원이 되는 나’ 라고 말할 것이다. 누구나 다하는 공통적인 스펙이 아닌 대체제가 없는 사람이 되기를 목표로 삼고 살아왔다. 언제부터가 난 늘 성공에 대한 갈망이 있었다. 하고자 하는 일이 생각하면 누구보다 먼저 실행하는 사람이다. 그로인해 여러 번의 뼈아픈 실패도 경험해야 했다.

고등학교 졸업 후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항상 가슴 한 켠의 공허함을 느꼈다. 독서도 꾸준히 해보고 여러 가지 배움도 가져보고 취미생활도 해 봤지만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를 발견하게 되었다. 바로 대학 공부에 미련이었다. 사실 고등학교 졸업 후 서울에서 전문대에 입학한 경험이 있지만 졸업을 하지 못했다. 그 때문이었을까? 마무리를 잘 하지 못했다는 후회가 남아 있었던 것 같다.

아마추어의 세계는 조금만 해도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수 있지만 프로의 세계에서는 기대감을 주지 못하면 자멸하게 된다고 한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꼭 다시 한 번 대학학위에 도전해서 프로가 될 수 있는 밑거름을 만들고 싶었다. 뜻이 있으면 길이 있다 하지 않던가! 한발대 미래산업융합대학의 성인학습자 모집공고를 보고 무조건 원서신청을 했다. 지금 대학졸업장의 의미가 성공을 위한 필수 요건은 아니지만 적어도 나 자신의 성장에는 좋은 마중물이 될 것이고 또 다른 도전임은 확실하다. 비록 출발선상의 차이가 있지만, 이것 또한 끝까지 노력해서 극복하고 싶었다.

지난 봄 처음 수업을 듣기 위해 첫 강의실에 들어섰을 때가 기억이 난다. 우리 과는 회계세무부동산 학과로 인기가 많아서인지 학습자들도 많은 편이다. 나와 같은 또래보다 오히려 나보다 더 많은 나이의 인생 선배님들이 많았다. 그러면서 그분들의 식지 않는 열정에 나도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짐하게 되었다. 늦게 시작한 공부이기에 우린 모두 같은 마음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었다. 나와 함께 한 방향으로 걸어가며 의지하고 갈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즐거웠다. 학업과 생업을 동시에 하기에 때론 체력적으로 힘이 들기도 하지만 같은 동료들과 함께 할 수 있어 한 단계 한 단계 오를 수 있는 것 같다. 또 온라인 수업과 오프라인 수업을 병행할 수 있어서 어렵지만은 않다. 내가 한 선택이기에 그 선택에 집중하고 싶다. 학점을 위한 학습 아닌 끝까지 완주하여 꼭 졸업이라는 선물을 나에게 주고 싶다.

어떤 책에서 본 문구가 떠오른다. 우리에게겐 기회가 없는 것이 아니라 실력이 없는 거라고, 대학학위를 취득하고 나면 계속해서 박사과정까지 공부해 볼 생각이다. 쉽진 않겠지만 서두르지 않을 것이다. 포기하지 않고 한걸음씩 걸어간다면 가능하리라 생각한다. 또한 지금 하고 있는 금융직원 코칭 강사 분야에서도 실력자가 되고 싶다. 처음부터 한 일은 아니지만 나로 인해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준다는 것이 참 보람된 일이 되었다.

앞으로 나는 자만하는 사람이 아닌 실력을 갖춘 자신감 넘치는 선한 실력자가 되고 싶다. 차분히 실력을 쌓는 데 더 집중해서 많은 이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는 멋진 강연가가 되길 소망한다.



“ 다사다난(多事多難) 했던 나의 4년 ”



조창우
전기시스템공학과 17학번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현장에서 일하면서 혹은 취업준비를 하면서 대학졸업장이 제 발목을 잡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이러한 불편함과 걸림돌을 더 이상 경험하고 싶지 않아 미래산업융합대학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회사를 다니면서 학업을 같이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처음 대학에 입학할 무렵 대부분 야간대 학생들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많이 온다는 얘기를 들어서 친해지기 참 힘들겠구나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 참여한 후 생각보다 젊은 층도 많아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엔 다들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친구들이라 많이 지쳐있기도 하였고 학교가 끝나면 늦은 시간이라 집 가기 바빠 서로 얘기 나누며 적응하는 시간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모르는 부분은 서로 정보 공유를 하고 방학기간엔 다 같이 모여서 술 한 잔 씩 하는 자리를 가지면서 서로에 대해 알아가며 어느덧 졸업을 앞두고 있는 4학년이 되었습니다.

비록 주간학생들 같이 즐거운 캠퍼스 생활과 동아리 활동은 부족했지만 직장생활에 대한 고충도 나누고 시험기간엔 주말에 모여 함께 공부하면서 많은 정이 쌓였습니다. 다른 학과에 비해서 다소 적은 동기들이지만 그래서 더 우리끼리 푹푹 뭉쳐서 서로 도우며 대학생활을 지내왔습니다.

스트레스 많은 직장 일을 마치고 학교에 가면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서 휴학하고 싶다는 생각도 수도 없이 해왔습니다. 하지만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이해해주고 이끌어주신 교수님과 즐겁게 웃으면서 학교생활을 할 수 있게 힘이 되어 주는 학우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온 것 같습니다.

이제 졸업을 하게 되면 서로 연락도 쉽지 않고 더더욱 보기 힘들어지겠지만 지금까지 많은 도움을 주고 불평불만 없이 잘 따라와 주며 힘이 되어준 학우들이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졸업 후에도 가끔은 술 한 잔 기울이고 힘든 일 있을 때 편하게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주고 싶습니다. 안 그래도 일하느라 보기 힘든 학우들 코로나로 마지막 4학년 반년을 못보고 지냈지만, 남은 한학기도 좋은 추억 많이 만들고 다 같이 즐거운 마음으로 졸업 했으면 합니다.

나를 찾아가는 여행



김수영(가명) | 18학번

미국영화를 보면서 카운셀러에게 상담받는 장면을 보며 부러웠던 기억이 난다. 우리나라에선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관과 비용의 문제, 그리고 심리상담에 대한 정서와 인식이 아직도 보편화 되진 않은 듯하다. 나는 한밭대학교 미래산업융합대학에 입학 후 심리상담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알고 주저 없이 신청했다. 사실 시작은 했지만 어떤 결과를 기대하진 않았다.

많은 사람들에게 “나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나요?”라는 질문을 한다면 아마 누구라도 잘 알고 있다고 얘기할 것이다. 나 역시 예전엔 그랬던 것 같다. 학기 중에 있었던 몇 번의 심리검사를 통해 나를 조금씩 알아가긴 했지만 사실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건 또 다른 문제라는 놀라운 사실은 심리 상담을 받은 지 1년쯤 되었을 때였다.

처음 심리상담을 받을 때 살짝 부담감이 있었지만 상담 선생님의 배려로 편안하고 안정된 상담을 받을 수 있었다. 처음 상담이 시작되고 가장 어려웠던 점은 나의 과거 히스토리를 다 이야기 한다는 것이었다. 결과에 대한 의심도 있었고 상담 자체가 힘든 시기도 있었다. 그럴 때마다 선생님의 끊임없는 응원과 격려로 포기하지 않도록 이끌어 주셨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선생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고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날 때쯤 인생의 전환점을 맞게 되었다. 당연히 알고 있을 것이라 의심치 않았던 나의 내면의 문제들을 알고 인정하면서 삶 자체가 바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수 없다.

대부분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이 생겼을 때 주변의 지인들에게 의논을 하거나 조언을 구하곤 한다. 하지만 내 경험상 일시적인 해소일뿐 본질적인 해결은 될 수 없었다. 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본질적인 문제의 해답을 찾기 위해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한밭대학교 미래산업융합대학 학생상담실의 심리프로그램이 나에게 그 답이 되었다.

나의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은 계속되고 있다. 그 여행 속에서 목표를 찾고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해주시는 심리상담 선생님께 무한 감사를 드린다.



<http://mirae.hanbat.ac.kr>



HANBAT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ultidisciplinary Studies in Converging Science



한밭대학교 미래산업융합대학

[유성덕명캠퍼스]

34158 대전광역시 유성구 동서대로125(덕명동) TEL. 042-828-8881~2 FAX. 042-828-8889

[대덕산학융합캠퍼스]

34158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1로 75(관평동) TEL. 042-939-4800 FAX. 042-939-4803